

조선후기 漢詩에 나타난 음식문화 특성 - 紀俗詩를 중심으로 -

김미혜 · 정혜경*

호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the Food Culture of Chinese Poetry in the Latterly Chosun Dynasty - Focused on Korean Customs Poetry -

Mi-Hye Kim, Hae-Kyung Ch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ulture through the written folk poetries - which were described vividly the life customs peculiar to the Nation and so much that were Korean National customs papers written by Chinese poetry -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period. It is used the way which is studied by the literature after collection, analysis, synthesis the analyzed second material of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period's written folk poetries. It is summarized to below five cont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ulture through the written folk poetries. The first is the various and abundant food culture. The second, that is the food culture of praying blessing and praying a fruitful. The people prayed to be a year of abundance of food stuff and train oneself and have medicine for their health, but there has been repeated seasonably an occult action for being blessing which had settled down to the beginning of the year's customs. The third, it is the food culture of share tender feeling with among the people. The fourth, it is the food culture of business and economy's growth image. The fifth, it is the food culture of an image of economic distress and the trouble between rich and poor.

Key Words : Chinese Poetry, food culture, Korean Customs Poetry, Chosun Dynasty

1. 머리말

인간은 일상을 살지만, 일상은 자동화되어 감지되지 않는다. 일상이 언어로 재현되어 비로소 우리의 의식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일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강명관 2002). 인간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지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객관화되지 못하고 문화로 인식되지 못한다. 먹되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먹느냐 하는 것 등이 음식문화인데, 음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시하였던 관심사나 의식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화를 읽는 하나의 상징적인 코드로 해석함으로써 한국음식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음식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문학을 통하여 일상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조선후기는 일찍이 체험해 보지 않았던 엄청난 국란을 겪은 후 기존 이념과 사상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대두하고 국란을 극복하고 민생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

이 대두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김상홍 2003). 우리의 고유한 식생활전통이 확립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조선적인 표현을 추가하는 '조선시', '조선풍'의 창작이 강조되었다(이정선 2002). 漢詩에 있어서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각 지방 향촌사회의 토속적 생활 습속, 농가의 생활상 등 주로 기층민의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紀俗詩가 특징적으로 연작되었다. 漢詩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抒情을 읊는다. 그 중에는 산수와 자연의 景物로부터 얻은 감회를 서술하거나, 또는 실생활에서 얻은 회포를 詠嘆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풍속을 묘사하거나 민생의 病苦를 포착하고, 현실의 矛盾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의 삶을 詩的으로 반영한 이러한 성향은 漢詩 전통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서형주 1999). 조선후기에는 일상의 예술로의 침투현상이 뚜렷해지면서 漢詩에서도 세속의 일상을 제재로 하는 다수의 紀俗詩가 씌여진다.

紀俗詩는 '민풍 토속을 채집하여 한시로 기록한다는 분

* Corresponding author : Hae-Kyung Chung, Hoseo University, 120-1, Asan, Chungnam Korea
Tel: 019-684-8383 041-540-5631 E-mail : hkchung@office.hoseo.ac.kr

명한 창작의식을 바탕으로,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생활상을 집중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한시 양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명순 2005). 이것들의 외형적인 특징은 작품수가 많을 경우 2백여 수에 이르는 군집의 연작형태를 갖는다는 것이고, 소재는 대부분 민중의 생활 주변에서 취한 것들이며, 관심의 방향이 시정의 서민과 민중의 생활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양식적 존재 양상에 따라 근체시와 고체시, 단편시와 장편시, 서정시와 서사한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형시와 연작형 작품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紀俗詩의 형식은 특정 양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범주 설정의 주요 기준은 제재와 내용에 있으므로, 기속악부와 죽지사, 풍속시, 국속시, 농민시, 민요시, 사회시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논의된 漢詩 중 민간의 풍속과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노래한 작품은 모두 紀俗詩에 포함된다(김명순 1994).

우리민족의 세시풍속과 음식문화를 다루는 기존의 논문들(조후종 1996; 정혜경 1996; 임양순 1986; 김향희, 황춘선 1991)은 주로 절기음식 위주의 연구이거나, 산문 풍속지인 유득공(柳得恭, 1700년대 말)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김매순(金邁淳, 1819)의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등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漢詩를 통한 음식문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詩로 쓴 우리 민족의 풍속지라 할 만큼 민족 고유의 생활습속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조선후기 紀俗詩에 표현된 음식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조선후기의 민중의 생활, 의식, 정서와 풍속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紀俗詩에 표현된 음식으로 분석된 민중의 일상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민중의 삶, 더 나아가 우리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선후기 紀俗詩의 작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의 『세시풍요(歲時風謠)』는 현재 전해오는 판본이 2종으로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가람본'과 '고본'으로 일컬고 있으며, 모두 필사본이다. 수록된 작품수는 모두 200여 수에 이르며, 정월 초하루의 풍경부터 설달 그믐날 밤을 지나 다음 해 정월 초하루 새벽에 이르기까지 세시명절의 여러 모습들을 각각 칠언 절구의 한시 형태로 빠짐없이 묘사하여 수록하였다.

2. 홍석모(洪錫謨, 1781-1850)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는 서울의 세시풍속을 칠언절구 126수로 형상화한 연작시이다. 홍석모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산문으로 기록하여 「동국세시기」를 저술하고, 이와는 별도로 세시풍속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도하세시기속시」를 지

은 것이다. 홍석모의 「도애시집」은 전질 50권 21책으로 약 6,000수 이상의 시가 실려 있다. 「海商行」「民荒篇」「都下歲時紀俗詩」등 많은 작품이 「도애시집」에 실려 있다.

3.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세시잡영(歲時雜詠)』은 「청장관전서」와 「영처고」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이다. 「영처고」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모두 22수의 오언절구로 이루어져 있고, 지어진 시기는 영조40년인 1764년 설달그믐 내지 1765년 새해 초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주로 새해를 맞이하여 행하던 여러 가지 놀이와 행사를 다루고 있다.

4.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원조희작(元朝戲作)』과 『원석(元夕)』은 「두타초(頭陀草)」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들이다. 「두타초(頭陀草)」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총 18책의 필사본인데 필사자와 연도는 알 수 없다. 「원조희작」은 설날 아침에 장난삼아 지은 작품들이고, 「원석」은 정월 대보름날에 지은 작품들이다.

5. 이안중(李安中, 1752-1791)의 『비년사(肥年詞)』와 『우오절(又五絕)』은 「현동집(玄同集)」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들이다. 「현동집(玄同集)」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 68장의 필사본인데 필사된 연도는 알 수가 없다. 이 작품들은 모두 새해 초에 행하던 세시놀이를 두고 지은 것이다.

6. 마성린(馬聖麟, 1727-1798)의 『농제속담(弄題俗談)』은 「안화당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이다. 「안화당사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책의 필사본인데 필사된 연도는 알 수가 없다. 「농제속담」은 모두 14수로 이루어진 풍속시이며, 설달 그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7. 김려(金鑣, 1766-1821)의 『상원리곡(上元俚曲)』은 「담정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이다. 「담정유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2권 6책이 목활자본이고, 정월 대보름의 여러 풍경을 25수의 칠언절구 형식으로 읊은 기속시이다.

8.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상원죽지사(上元竹枝詞)』, 『북행백절』은 「추재집」과 「추재시고」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추재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추재시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8책의 필사본인데 필사자와 필사된 연도를 알 수가 없다.

9. 황현(黃玹, 1855-1910)의 『상원잡영(上元雜詠)』은 「매천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연작시이다. 「매천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7권 3책의 신식 활자본이고, 김택영이 편정하여 1911년에 간행하였다. 「상원잡영」은 황현이 살았던 전라북도 남원 지역의 정월 대보름 풍속을 소재로 지은 10수의 紀俗詩이다.

10. 강이천(姜彝天, 1769-1801)의 『한경사(漢京詞)』는 규장각에 필사본으로 문집이 전하는데, 「증암고」8권 4책이 전한다. 여기에는 300여 수의 시와 「이화관총화」와 같이

소품체로 된 산문들이 실려 있다. 『한경사』 106수는 1790년 경에 성립된 칠언절구 형식으로 제목이 없으며 내용은 17, 18세기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이 가져온 도시의 상업화와 이로 인한 각종 문화예술을 노래하였다.

11. 한양성의 지도를 보고 이를 칠언 100운 200구에 달하는 장편으로 읊은 『성시전도시(成市全圖詩)』는 신광하(申光河) 「진택집」 영인본, 박제가(朴齊家) 국립중앙도서관의 「한양성시전도가」, 이학규(李學逵) 「인수옥집」 영인본,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 영인본 등에 각각 실려 있다. 정조 13년 기유년(1789)에 어명으로 서울 도성의 전경인 「성시전도」를 그렸는데, 그 후 정조가 이 그림을 보고 시로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들 작품은 서울 도성의 경관, 궁성과 여향의 규모, 시정의 풍물세태 등을 7언시 100운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풍속지적 성격을 띤 紀俗詩이다.

12. 권용정(權用正, 1801-?) 『세시잡영(歲時雜詠)』,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등은 김형수가 지은 「농가십이월속시」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권용정의 시문집은 전하지 않지만,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함께 사가로 병칭될 만큼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았고 민족정서의 추구경향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조선후기 대표적 시인이자 할 수 있겠다.

13. 윤정기(尹廷琦, 1810-?)의 「금릉죽지사(金陵竹枝詞)」, 이양연(李亮淵, 1771-1842)의 「촌노부(村老婦)」, 이제영(李濟永, 1799-1871)의 「대신부언회정기대인용」 등의 작품은 주로 서민들의 풍속과 고된 생활상의 다양한 국면을 광범위하게 다룬 시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통한 고찰 연구로서, 前記한 조선후기 紀俗詩의 작품들을 분석한 2次資料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次資料 중 대표적인 문헌은 국립민속 박물관에서 집성한 「한국세시 풍속 자료집성-조선후기 문집편」이며, 강명관, 김명순, 이관성 등의 여러 한문학자들의 漢詩 연구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연구하였다.

III. 漢詩에 나타난 음식문화 특성

조선후기 漢詩는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각 지방 향촌사회의 토속적 생활 습속, 농가의 생활상 등 주로 기층민의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紀俗詩가 특징적으로 연작되게 된다. 이러한 紀俗詩에 나타난 생활상을 특히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식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하고 풍성한 제철 음식문화

우리민족은 절기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 어업, 사냥, 채집, 가정생활의 갖가지 습속을 이루어 왔다. 절기와 생활이 결부되어 여러 명절이 정해지고 그날은 맛있는 음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 나누어 먹으니 이를 ‘절식’이라 하며 계절에 따라 산출

되는 식품으로 요리한 음식을 ‘시절음식’이라 한다(이성우 1985). 세시풍속은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 때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농경문화권의 행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주로 평상시에는 곤궁하게 식사를 했지만 명절이 되면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 떡, 한과 같은 별식을 즐기는 서민층의 식생활이 더욱 잘 나타난다. 세시기속시들은 민족 고유의 생활습속을 매우 상세하게 채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홍석모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와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가 세시풍속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하곤, 이안중, 마성린, 김려, 조수삼 등의 세시기속시가 홍석모와 유만공에 이르러 집대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석모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와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두 작품에 표현된 식재료 및 음식을 <Table 1>과 같이 정리 분류함으로써 당시대의 음식문화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歲時紀俗詩의 소재는 세모와 정초에서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의 풍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월 대보름 풍속에 집중되어 있다. 농경사회에서 대보름은 일년 중 가장 여가가 많은 농한기로 각종 민속행사가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다. 또한, 농업국으로서 변함없이 쌀을 중심으로 한 떡과 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월에는 가을에 말려두었던 묵은 나물과 저장성이 강한 곡류와 두류, 견과류 등을 이용하였으며, 봄이 시작되는 이월에는 냉이, 쑥, 미나리, 보리, 부추, 파, 송갸초, 겨자등의 봄나물이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꽃이 피는 삼월에는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부쳤으며, 청매실을 따 청매실주를 담고 사월에는 느릅과 석남잎으로 떡을 하였으며, 이른 콩을 수확하여 콩을 볶아 먹었다. 오월에는 앵두를 따고, 쑥을 뜯어 수리취떡을, 의남초(원추리)로 나물을 하였다. 유월에는 복숭아, 참외가 익고 늦가을에 심었던 밀을 수확하여 국수를 만들었으며, 칠월에는 수박이 익고 사과가 익기 시작한다. 또한 팔을 수확하여 팔죽을 쑤어 먹는다. 팔월은 수확기로 익은 곡식과 과실이 일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이다. 구월은 배추와 무를 거둬 감장을 하고 국화를 따 전을 부치고 술을 빚는다. 시월에는 저장된 곡식으로 시루떡과 만두를 빚고 깨떡과 강정을 해 먹는다. 십일월은 제주에서 감귤 등 향기로운 과일이 진상되고 집집마다 저장된 팥으로 팥죽을 쑤다. 십이월은 농한기로 산짐승과 참새를 사냥하였으며, 곡류로 엿을 만들고, 만두를 빚어 이웃과 넉넉히 나눔으로 한해를 마감하게 된다. 이와 같이 『歲時風謠』와 『都下歲時紀俗詩』를 통하여 본 우리음식문화 특성은 사계절의 뚜렷한 계절 변화에 따라 생산된 식재료를 슬기롭게 사용하여 節食을 만들어 건강을 지켰으며, 이 飲食을 이웃, 친지와 나눔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에 나타난 節食의 다양하고 풍성한 제철 음식문화의 특성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면 다

<Table 1> 「歲時風謠」와 「都下歲時紀俗詩」에 나타난 飲食材料名와 飲食名

月	節氣	飲食材料名		飲食名	
		歲時風謠 ¹⁾	都下歲時紀俗詩 ²⁾	歲時風謠 ¹⁾	都下歲時紀俗詩 ²⁾
正月	元旦	쇠고기, 기름진 꿩, 미나리	즉백잎, 산초, 소, 고기, 채소, 쌀, 소금	찬막걸리, 떡국, 흰떡, 강정, 타락죽, 도소주	탁주, 술, 도소주, 안주, 탕, 떡, 가래떡, 떡국
	上元	갯, 호두, 개암, 고기, 찹쌀, 꿀, 실과	생밤, 호두, 배춧잎, 김, 채소뿌리, 버섯, 시래기, 대두황권, 오신채, 오얏, 석류, 개, 콩, 보리, 벼, 조, 기장, 칩	산나물, 김, 밥알, 약밥, 오곡밥, 묵은나물, 국, 곡수, 탕, 과자, 술, 냉면, 산적, 돼지고기	약밥, 술, 팔죽, 오곡밥, 제삿밥, 박나물, 술
	立春	파, 무, 겨자, 고추장	파, 부추, 미나리, 승검초, 겨자	나물, 비빔밥, 백엽주	
	奴婢日		술잎, 벼	떡	떡
二月	寒食	저합, 박, 외(오이), 보리, 미나리, 뽕나무잎, 씀바귀, 냉이, 쑥		흰송편, 막걸리, 밥, 나물, 쑥국, 술	술
三月	三辰日		두견화	죽엽주, 두견화전, 술, 떡	떡, 화전
四月	浴佛日	느릅, 콩	붉은콩	떡	석남떡
五月	端午	수리취, 앵두, 의남초	자호박, 쑥잎, 익모초	수리취떡	제호탕, 수리취떡, 쑥떡
	月內	밤송이, 석류		청매실주	
六月	流頭	복숭아, 참외, 보리	꿀, 얼음	보리수단, 흰떡, 꿀물, 흰쌀밥, 밥, 막걸리	분단, 떡, 소면, 술
七月	伏日	수박, 양, 개, 능금, 마늘	개, 쌀, 팔	죽, 제호탕, 소주, 삼해주	개고기국, 흰밥, 팔죽
	百種日	벼, 수수, 곡식			나물, 죽순밥
八月	秋夕	대추, 밤송이, 닭, 채소, 난알, 중도미, 소천어, 콩, 녹두, 박, 소	곡식, 닭	인절미, 쌀떡, 햅쌀밥, 토란국, 떡, 녹두묵, 술, 탁주	술
九月	重陽	지게미, 배추, 무, 닭, 국화꽃		국화전, 상락주, 김장, 막걸리	국화전, 술
十月	午日		우유, 연유, 기름, 고기, 마늘, 파, 밀반죽, 쌀가루, 고치, 꿀	떡	시루떡, 술, 만두, 탕, 깨떡, 오색강정
	月內	닭, 돼지			
十一月	冬至	생선, 감귤	꿀, 새알, 계란, 계피, 생강, 소가죽, 감귤	팔죽, 새알, 붉은 전약	팔죽, 꿀떡
十二月	臘日	산짐승, 산돼지, 참새, 납설수	참새, 멧돼지, 토끼, 고기, 샘물	매화떡은 술, 차, 과즙, 매추리국, 토끼구이	눈 넣어 끓인차
	歲訖	쌀가루, 고기, 북어, 쌀, 건어물		떡, 술, 차, 엿, 소금	
	除夕	쌀		만두, 산적	도소주

1) 歲時風謠: 유만공(柳晩恭, 1793-1869),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필사본), '고본' 번역
 2) 都下歲時紀俗詩: 홍석모(洪錫謨, 1781-1850), 국립도서관 『도애시집(陶涯詩集)』 제20책

음과 같다.

白蔥黃韭與青芹 하얀 파와 노란 부추와 푸른 미나리
 甘菜芥芽供五辛 승검초와 개자로 오신채를 이바지하네
 春入千門纖手送 봄에 아녀자들이 캐서 궁궐에 보내는데
 滿盤香味動牙脣 그릇 가득 향긋한 맛 입맛을 돋구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菜盤)

樅齊青青苜蓿香 푸른 씀바귀와 냉이 향기로운 묵숙
 早春新菜正堪嘗 이른 봄 새로 돋은 나물 매우 맛있네
 山家韻事隨時物 산가의 운치 있는 일은 시절사물 따라서
 會酌陽坡煮艾湯 양지 바른 언덕에서 쑥국 끓여 술 마시는 것
 유만공 『歲時風謠』(寒食)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에는 갯 돋은 향긋한 파와 부추, 미나리, 승검초(당귀썩), 겨자(芥子)등의 五辛菜 또는 오훈채라고 하는 봄나물을 물에 데쳐 초장에 무쳐서 먹었다. 눈 밑에서 갯 돋아난 푸성귀로 五辛菜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긴 겨울 동안의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였고, 또한 그 향과 맛 덕분에 식욕을 돋구는 효과를 갖는다. 五辛菜는 자극성이 있어 음욕이 유발된다고 하여 불가에서는 꺼리는 채소이기도 한만큼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한식(寒食)은 불을 금하여 찬밥을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불을 금하는 것은 파종기에 화기로 인하여 곡식이 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미와 한식을 전후로 가뭄이 심하므로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

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한식에도 푸른 썸바귀와 냉이, 향기로운 썩 등 이른 봄에 새로 돋은 나물을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작품에서 보듯 계절 따라 따사로운 언덕에서 향기로운 시절 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운치있는 일이고 삶을 여유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이다.

三三令節艷陽天 아름다운 절기 삼짓날은 별이 많이 드는 때라
萬紫千紅競妬妍 울긋불긋한 꽃들은 다투어 어여쁨을 질투하네
最是杜鵑堪作餅 두견화가 떡 만들기 가장 좋아
春城無處不花煎 봄날 성안에는 곳곳에 화전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花煎)

삼월삼짇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고 하여 ‘답청절(踏青節)’이라 하는 삼짇날에는 진달래꽃(두견화)을 따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빚어서 둥근 떡을 만들고 화전(花煎)을 지져 먹는다. 화전은 봄의 미감을 한층 돋워주며, 시식으로 풍류 있는 別味에 속한다.

翠艾初蒸爛染糕 처음 뜬은 수리취로 만든 떡 푸른빛 진하고
時新園果薦含桃 새로 나온 제철 과일 앵두를 바치네
閨娘解惜宜男草 규방의 아가씨 의남초 귀한 줄 알고서
採向庭前玉手勞 고운 손 수고로이 뜰 앞에서 캐네
유만공 『歲時風謠』(수릿날)

草名益母一何奇 풀 이름이 익모라 한편으로 어찌 그리 신기한가
打成粉糕象輪圓 중오일 때 뜬어두는 것이 약에 좋아
刻入鏤虎除邪後 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좋아 다투어 차고 다니니
更擅時需賣餅天 단전과 중오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益母草)

단오(端午)는 춤지도 덤지도 않은 때이기도 하고 설날, 추석과 함께 삼대명절로 축제의 날이기도 했다. 처음 뜬은 연하고 어린 수리취로 떡을 하여 수레바퀴모양으로 빚어 수리취떡을 만들었으며 원추리를 뜬어 나물을 하였고, 앵두를 따 앵두화체를 만들고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또한 익모초와 함께 썩을 뜬어 약초로 이용 하였는데, 익모초는 산모의 몸에 이롭고,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즙을 내어 마시면 효과가 있고 썩은 냉증에 사용되므로 약초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썩과 익모초는 식재료인 동시에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것이다. 『都下歲時紀俗詩』에서 익모초는 중오(重午)때 뜬어두는 것이 약에 좋고 丹田(養生의 중요한 부위)과 種玉(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 하였다. 남자들의 양생(정력)을 더하여 주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秦門磔狗饗神禳 진나라 궁궐에서 개를 잡아 귀신에게 바치며
제앙을 물리쳤는데
伏日遺風昭戎羹 복날에 개고기국 먹는 풍속이 남게 되었네
禦暑補虛澆白飯 더위를 막고 허를 보양하는데 백반을 말아먹네

家家醖食送三庚 집집마다 음식을 각출해서 삼복을 보내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三伏)

삼복은 절기 중 가장 더운때여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몸이 허하여져 몸을 보신하기 위하여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넣고 밥을 말아서 보신탕이라 하여 즐겨 먹었다. 위 시에서 보듯 복날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장국을 먹는 풍속은 일반화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歲時風謠』에서는 복날(伏日) 시절음식으로 개장국뿐만 아니라 뜨거운 팔죽과 소주를 먹는 것이 제격이라 하였고 또한, 붉은 능금과 검붉은 마늘은 병든 비장을 낮게 한다고 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2005). 이로서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우리 민족의 약식동원(藥食同原) 사상을 읽을 수 있다.

靑荳蒸養綠豆泡 파란 콩 넣어 떡 찌고 녹두로 묵을 쑤고
新淸舊濁雜陳肴 새 술과 묵은 탁주에 갖은 안주 곁들였네
秋來飲席饒樽勺 가을날 술자리 술 가득한 동이 속 구기³⁾는
屋角初收暴暴匏 지붕 모퉁이에서 처음 딴 박으로 만든 것이네
유만공 『歲時風謠』(秋夕)

3) 구기: 술이나 기름, 죽 따위를 풀 때 쓰는 기구로 자루가 국자보다 짧고 바닥이 오목함

추석(秋夕)은 신라가 발해와 싸워 이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명절로 삼고 일반 백성들이 온갖 음식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겁게 논다고 하였으니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이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해라”는 속담과 같이 추석은 일년중 가장 풍족하게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년 내내 추석같이 충족하게 되라는 소박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歲時風謠』에와 같이 파란 콩을 넣어 떡을 찌고 녹두로 묵을 쑤고 햅쌀로 빚은 동이에 가득 담긴 술은 풍성한 축복인 것이다. 초가 지붕위에 웅기 종기 하얗게 열린 박을 따서 그 하얀 박속으로 박나물을 해 먹는 것도 추석의 뛰어난 시절음식이다. 『都下歲時紀俗詩』에는 집집마다 닭과 술을 장만하여 이웃들과 서로 배불리 먹고 마신다는 내용이 추석의 풍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九秋菊爲重陽開 구월 가을의 국화는 중양절에 피니
朵朵黃金噴玉臺 황금색 떨기 떨기 옥대에 빛나네
煮作香糕增趣味 국화떡을 지지니 입맛을 더하는데
龍山只有泛花杯 용산에는 다만 꽃을 띄우는 술이 있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重陽節)

구월은 단풍구경하기에 좋은 때이다. 산천이 온통 붉은 바다를 이루며 타오르는 모습은 그 어디에 비길 데 없는 황홀한 꿈과 같다. 9월 9일은 중양일(重陽節) 또는 중구일이 라고 한다. 서울 풍속에도 중양일에 남산과 북한산에 올라 마시고 먹으며 즐겼는데(홍석모 1973), 이것을 등고(登高)

라 한다. 가을에 국화를 따서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국화전을 지지고 술을 빚어 높은 산에 올라가 시를 읊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秋圃收來負郭村 성 밖 마을에서 가을 채소 수확하니
 青青菘葉白菁根 푸르고 푸른 배추와 흰 무 뿌리라네
 家家滿甕沈漿菜 집집마다 항아리에 가득 담근 김장은
 準備三冬晶飯餐 삼동의 정갈한 반찬 준비한 것이라네
 유만공 『歲時風謠』(重陽節)

구월은 또한 김장철이다. 채소밭에서 무와 배추를 거두어 김장을 담근다. 이 김장은 겨울과 이듬해 햇채소가 나올 때까지 겨울 반찬이 된다. 김장은 농가의 연중행사 중의 큰 하나이다.

油調羹載雜葷蔥 기름을 잘게 썬 고기에 발라 마늘과 파를 섞어
 爐上撐鑄炭熾紅 화탄이 붉게 타는 화로 위에 술을 지명시키네
 酒後大燂圍四座 빙 둘러 앉아 술과 고기를 먹는데
 消寒勝會自初冬 첫 겨울부터 추위를 녹이는 좋은 모임이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煖爐)

시월의 행사중 『都下歲時紀俗詩』에서와 같이 숯불을 화로에 피워 놓고 번철을 올려놓고 고기에 기름, 마늘, 파 등으로 양념을 하여 화롯불에 구우면서 둘러 앉아 먹으면 이것을 난로회(煖爐會)라 하였다. 빙 둘러 앉아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는 시절음식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술잔속에 훈훈한 이야기까지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

烹頭食品自征蠻 남만 정벌부터 만두가 음식이 되었는데
 縮肉加蔥麪裹饅 고기를 움치고 파를 섞은 밀반죽으로 싸네
 半壁翻匙甘適口 반벽만한 것을 수저로 떠서 입을 달게 하는데
 熱湯群嚼暖風寒 뜨거운 탕을 여럿이 마셔 추위를 물리치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饅頭)

醇紛煮油箇筒同 쌀가루를 발효시켜 기름에 튀겨 똑같이 만드니
 圓形如薊削如蔥 둥그런 모양은 고치 같고 자른 모양은 파 같네
 元來麻餅供寒具 원래 깨떡은 한구로 이바지하며
 旨味添飴五色濃 꿀을 바른 오색강정은 진미라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乾釘)

시월에는 수확한 곡식과 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절음식을 즐겼는데 『都下歲時紀俗詩』에서는 난로뿐 아니라 만두와 강정등을 소개하는데, 만두는 가장 조촐하고 소박한 시절음식이며, 다섯 색깔의 물들인 강정은 설날에서 대보름까지의 제물로서 과일과 같이 들며 세찬(歲饌)으로서 빈객을 접대하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다.

십이월의 동지(冬至)에는 어느 집이나 팔죽을 쑤어 먹고, 계피, 생강, 꿀을 쇠가죽에다 섞어 전약(煎藥)을 만들어 진상 했으며 이 전약은 혹한을 방어하며 겨울 내내 몸을 따뜻하게 보한다고 하여 궁중의 보약(補藥)으로 쓰였다. 이

것 역시 藥食同原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감귤과 향기 나는 많은 과일이 진상되었다.

峽獸擒來趁臘平 납평일에 때 맞추어 산짐승 잡아오니
 山猪獻進御廚盈 진상한 산돼지가 수라간에 가득하네
 更聞林外砲聲起 숲 속 건너 거둬 올리는 총포소리는
 知有哨官射雀行 초관이 참새 잡으려고 쏘는 것이네

梅花泛酒剩清香 매화 띄운 술에는 맑은 향기 그윽하고
 雪水煎茶勝液漿 납설수로 달인 차 과즙보다 낫네
 回笑他家今日會 다른 집의 오늘 모임을 돌아보며 웃나니
 羹鶉燂兔效烹羊 메추리국 토끼구이로 팽양을 흉내내네
 유만공 『歲時風謠』(臘日)

십이월의 납일(臘日)에는 산돼지와 참새등을 잡아 진상하였다. 참새고기가 천연두에 잘 듣는다하여 참새를 잡으러 나서는 일이 많았는데 이날만은 총을 쏘아서 참새를 잡아도 목인했다고 한다(임기중 1993). 이렇게 약으로 쓰인 용도 외에도 농한기인 겨울에 흰눈이 내리면 각 고을에서 함동으로 눈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산토끼, 산돼지등 산짐승을 잡았으며, 이러한 산짐승으로 추운 겨울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등을 보충한 것이다. 납일에는 납일에 내린 눈으로 차를 달여 마셨는데, 이물은 살충약과 해독약으로 쓰인다고 하고 이날 눈이 많이 내리면 대풍(大豐)이 들 징조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걱정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납설수로 달인 차가 과즙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민족은 계절에 나는 식품재료를 거의 최대한 이용하여 절기음식을 만들었으며, 시절음식은 식보(食補), 즉 몸을 보하는 약의 의미가 강했는데 이는 떡과 제철과일 및 채소류 섭취를 통한 열량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보충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조절하여 건강을 지속시키는 방편이기도 했다.

2. 기복(祈福), 기풍(祈豊)의 음식문화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풍족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농경민족의 최대 소원인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무병, 장수와 같은 福을 비는 주술적인 행위가 세시풍속으로 정착해서 계절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절대자에게 간절히 복을 비는 기원에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紀俗詩에 나타난 음식을 매개체로 한 기복과 기풍의 음식문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우리민족의 의식과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生栗胡桃顆尙圓 생밤과 호도는 둥근 것이 좋은데
 牙間嚼破豈徒然 이 사이에서 깨뜨리는 것이 어찌 의미가 없으리오
 願言身上無癰癤 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없기를 바라며
 固齒良方俗說傳 이를 튼튼히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세속에서 전하네

홍석보 『都下歲時紀俗詩』(腫果)

위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대보름 풍습인 '부럼(腫果)깨기'에 관한 내용이다. 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깨무는데 대개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기도 하나 노인들은 이가 단단치 못하니 몇 개만 깨문다. 여러번 깨물지 말고 한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일단 깨문 것은 껍질을 벗겨 먹거나 첫 번째 것을 마당에 버리기도 한다. 깨물 때에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부럼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겨울동안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열량 보충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호두, 잣 등 견과류에 들어 있는 양질의 불포화지방산과 무기질, 비타민 B군, E등은 피부병 예방,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此日家人早朝起 오늘은 집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悶我老衰勸二食 쇠한 이 몸 걱정하며 두 음식 권하네
 勸酒謂之是耳明 술을 권하면서 귀밝이술이라 하고
 勸肉謂之是固齒 고기 권하면서 이근히산적이라 하네
 마성린의 『농제속담(弄題俗談)』정월대보름 6수

위 작품은 부럼과 함께 대보름날 대표적인 풍습이 '귀밝이술'에 관한 내용이다.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모두 술을 한잔씩 마시니, 귀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일년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도 전한다. 이때 술은 차게 해서 마시며, 술을 마시면 귀미이 빨갛게 되기 때문에 '귀가 붉어지는 술'이란 말에서 귀가 밝아진다는 뜻이 생겼다고도 한다. 맑은 술이어야 귀가 더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맑은 술일수록 도수가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부녀자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귀밝이술을 주는데, 어른이 부르면 귀가 밝아서 잘 듣고 빨리 대답하라는 뜻에서 애들부터 먹인다고도 한다.

起看棲鴉在樹梢 나무 끝에 깃든 까마귀 일어나 바라보니
 田家早作最今朝 농가의 일 시작하기 오늘이 가장 좋네
 經冬旨蓄都湘出 지난 겨울 묵은 음식 모두 꺼내 놓고
 女曰九炊男九樵 여자는 아홉 번 밥 짓고 남자는 아홉 짐 나무하네
 조수삼의 『상원죽지사(上元竹枝詞)』

위 작품은 조수삼의 『상원죽지사(上元竹枝詞)』에 나오는 대보름 풍속중 하나로 '이날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물 아홉 바구니와 나무 아홉 짐을 하면 1년 내내 배부르다'는 풍속을 시로 작품화한 것이다. 아홉이라는 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보름날 행해지는 '아홉 차례 행동'은 易理에서 '양의 수로써 모든 우환의 때를 이겨낸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배영희 1995). 즉, 보름

밥을 포식하면 그 해의 식생활에 굶주림이 없이 배부르게 지낼 수 있다는 일종의 祈農의식의 표현을 희화한 것이다.

迎新送舊一燈明 묵은해 보내고 새해 맞는 환한 등불
 齊米僧行鷄初鳴 재미승 지나갈 때에 첫닭이 우네
 臥聽廚間喧笑語 부엌에서 떠들썩 웃으면서 하는 소리
 今年甑熟家太平 시루떡 잘 익었으니 집안이 태평하리
 마성린의 『농제속담(弄題俗談)』선달그믐날 밤 4수

마성린은 재미승 풍속을 다루면서 복을 받기 위하여 시주 쌀을 퍼주고, 떡이 익는 모양으로 집안의 한해 운세를 점치는 등 소박한 민중 신앙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그믐날 밤 수세하며 놀던 사람들이 자정이 지나 새해가 되면 재미승에게 시주 쌀을 퍼다 주고 새해의 복을 맞는 풍속을 노래하였다.

敗箕三尺粘糠厚 석 자의 낚은 삼태기에 수북한 쌀겨
 小婢提向牛欄口 어린 계집종 외양간으로 가져가네
 一頭白飯一頭菜 한쪽에는 흰 쌀밥 한쪽에는 채소
 棉子一掬如粉糲 가루처럼 뺨아 놓은 목화씨 한움큼
 老牛舉首聞飯香 여물 냄새에 늙은 소 머리를 들고
 出舌舐鼻跑起忙 혀로 코를 핥으며 발떡 일어나네
 頑涎如膠注晴久 끈끈한 침 흘리며 한참 바라보고
 然疑四嗅未遽嘗 의심한듯 냄새 맡으며 먹지 않네
 須叟張舌如帚掃 잠시 후 빗자루 같은 혀를 내밀어
 揮吻一磨推箕倒 한 번 마시니 삼태기가 엎어지네
 小婢嚇向牛笑 어린 종 소를 향해 깔깔대며 웃지만
 不是牛性無歹好 소에게도 좋고 싫음 없는게 아니네
 今歲定應豐無比 금년 농사는 보기 드문 풍년 들것이니
 木綿雪積禾雲委 목화는 눈처럼 버는 구름처럼 쌓이며
 千畦崑葉賤於蒿 온 밭의 배춧잎은 썩보다 흔해져
 羹菘溢碗霜鱸美 맛있는 농어국 주말 가득 넘치리
 明年此日炊豆飯 내년 이 날에도 콩 여물을 쑤어
 報賽牛靈應不晚 소 신령에게 응당 제때에 보답하리
 황현의 『상원잡영(上元雜詠)』소먹이기

재야시인 황현의 『상원잡영』에 나오는 작품이다. 밥과 나물과 목화씨 등을 키에 담아서 소에게 먹이고 각종 작물의 풍작을 점치는 풍속을 다룬 것이다. 작자는 구체적 사물의 제시와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농가의 세시풍속을 생생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에 소에게 외양간에도 밥과 채소를 함께 차려 주어 소가 먹는 것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년을 점치기도 한다. 정월 보름날 장만한 나물과 밥을 키 위해 상처럼 차려서 소에게 준다. 밥 대신 여러 가지 곡식을 놓기도 한다. 그때 소가 밥이나 곡식을 먼저 먹으면 그 해의 농사가 잘 될 것이라 믿었고, 나물 등을 먼저 먹으면 농사에 좋지 않다고 믿었다. 차려 놓은 여러 가지 곡식 중에서도 소가 가장 먼저 먹는 것이 그 해에 잘 된다고 믿는 속신이 있다.

소는 농가에서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그것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소는 이렇게 우대 하는 반면 개는 굶긴다. 약식이나 오곡밥을 사람도 자주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개에게 까지 주겠느냐고 하여 보름날에 개를 굶기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 때문에 명절에 잘 먹지 못하고 쓸쓸하게 지내면 ‘개 보름 쇠듯 한다’고 하는 것이다.

熊蔬裏飯海衣如 곶취에 씹을 싸고 김으로도 씹을 싸
 渾室冠童匠坐茹 온 집안 어른 아이 둘러 앉아 함께 먹네
 三嚙齊嚙三十斛 세 씹을 먹으면 서른 섬이라 부르니
 來秋甌甕滿田車 올 가을엔 작은 밭에도 풍년이 들겠지
 김려의 『상원리곡(上元俚曲)』

대보름날에는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부른다. 복쌈은 여러 개를 만들어 그릇에 노적 쌓듯이 높이 쌓아서, 성주님께 올린 다음에 먹으면 복이 온다고 전한다. 때로는 돌을 노적처럼 마당에 쌓아 놓고 풍작을 기원하는 수도 있다. 첫째 복을 기원하고 곡식 농사를 잘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둘째 여름의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 ‘복쌈’을 먹는다. 또한, 묵은 나물 이파리나 김, 무, 배추 절인 것으로 밥을 싸서 한 움큼씩 삼키며 ‘열 섬이오’ ‘스무섬이오’ ‘서른섬이오’ 하고 외치는데, 이 또한 풍년을 바라는 기원이다. 건강과 풍년을 바라는 민중의 처지에서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과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민중의 희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

禳田吉日暖初陽 풍년을 비는 초하루 봄볕이 따뜻하니
 解下竿頭白粲囊 벗가뒷대 끝에 매단 주머니 풀어 내리네
 老婢莫辭勤灑掃 늙은 여종 부지런히 물 뿌리고 청소하니
 取多分餅飽飢腸 떡을 가장 많이 주어 배불리 먹게 하네
 유만공의 『歲時風謠』(二月一日)

정월 대보름날 벧짚을 엮어서 쌀을 담아 묶되 위는 가늘게 하고 아래는 넓게 하여 마당에다 나무를 세우고 그것을 매다는데, 이를 화적간(禾積竿)이라 한다. 2월 초하룻날이 돌아오면 그 대를 눕히고 그 쌀로 떡을 해서 먹는다. 농가에서는 보름날이나 그 전날 오후에 긴 소나무 장대의 꼭대기에 벧짚단을 묶어 깃봉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벼, 보리, 조 따위의 이삭과 종이꽃 팔랑개비를 꽂는다. 그 짚단 밑을 사방으로 새끼로 버터 세워 2월 1일 치울 때에는 머슴이 꼭대기에 꽂혔던 이삭을 섬에 담으면서 ‘정승했다’고 외친다고 한다.

上元乞飯百家尋 보름날 많은 집에서 밥을 구걸하여
 爲救羸兒久疾沈 오랫동안 병들어 파리한 아이에게 먹이네
 跨坐臼中對犬食 절구에 걸터앉아 개를 마주 보고 먹으면
 一春驚病更無侵 한 봄에 까맣게 타는 병 다시는 침범 못하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百家飯)

위 작품은 대보름날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며 밥을 빌어

다가 절구공이에 걸터앉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가난보내기 풍속’에 관한 내용이다. 아이들이 ‘더우밥’을 얻어 와서 그것을 절구통에 앉아서 먹거나 디딜방앗간에서 먹기도 하고 또는 샘가에 가서 먹는데 대개 개와 같이 먹는다. ‘내 더우 너 먹어라’ 하는 말을 하며 개에게 한번 먹이고 다음에 자기가 한 번 먹는 식을 되풀이하여 얻어 온 밥을 먹는다. 이는 기아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시화한 것이다.

2월 1일에 콩을 볶는데,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후 주걱으로 타지 않게 젓는다. 볶은 콩은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은 이를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며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날을 기다린다. 콩을 볶을 때에 주걱으로 저으며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 하고 주문(呪言)을 한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콩볶는 것으로 가을 수확을 미리 예상하기도 한다.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서 한 되를 솥에 볶고 다 볶은 다음 담아 한 되가 더 되면 풍년이 들어 추수가 많으며 한 되가 못되면 흉년이 들어 감수하게 된다고 전한다. 또 콩을 볶으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지고 청결해서 좋다고 한다.

米香豆汁煮鍋鑊 쌀 새알과 팥죽을 솥에 끓여
 庚日輒看赤粥嘗 복날에 팥죽을 먹네
 赤色元來神所怕 붉은 색은 원래 귀신이 두려워하니
 自冬至後已三禳 동지부터 이미 세 번 재앙을 물리치네
 홍석모 『都下歲時紀俗詩』(豆粥)

정월보름날이나 삼복에도 팥죽을 쑤어 먹지만, 특히 동지날에는 꼭 팥죽을 먹는다. 본래는 팥죽의 붉은 색이 벽사에 유효해서 상서롭지 못함을 쫓기 위해 주술적으로 사용하지만 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겨울 동안 감기에 안 걸린다 해서 먹는다. 이때 팥죽 속에 들어 있는 새알심을 자기 나이 수대로 먹기도 한다.

위와 같이 세시풍속과 관련된 음식 가운데는 복을 빌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많았다. 세시절기에 먹는 節食은 시절의 별미일 뿐 아니라, 각기 특별한 유래와 민속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시풍속과 함께 민간신앙으로 전승되었다. 紀俗詩는 민중의 기본적 생활양식인 세시풍속과 절식을 중요하게 다루어 민중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하였다.

3. 정(情)을 나누는 음식문화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은 한국인의 성격특성 중 내재적 속성을 담고 있고, 한국인 인간관계적 친밀도를 나타내며, 우리의식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개념으로 “情”이라는 개념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은 ‘우리’라는 말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며, ‘우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情’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적 친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일상적 관

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품앗이, 계, 두레 등 농경의식과 혼례, 회갑등의 통과의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사들에는 반드시 음식 나누기가 행해진다.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곧 동질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情'은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정서이며,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나눔의 정을 표현하는 데는 음식만한 매개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紀俗詩에 표현된 '情'을 나누는 매개체로서의 한국음식문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正月初賀太奔忙 정초의 새해 인사 몹시도 분주하니
 飽喫人家歲饌床 여러 집 세찬 상을 배불리 먹었네
 湯餅雉膏甘釘果 떡국에 기름진 꿩 그리고 단 강정
 霎時供具赤堪嘗 삼시간에 내오니 또한 맛있게 먹네
 유만공의 『歲時風謠』(正朝)

羅雀門前僕馬闌 쓸쓸한 문 앞에 마차가 가득하니
 聊將薄具飽新年 변변찮은 음식이나 세찬을 대접하네
 不厭濁酒林把摠 임 파총은 탁주를 마다하지 않고
 絕甘湯餅金生員 김 생원은 떡국을 유별나게 좋아하네
 이하곤의 『원조희작(元朝戲作)』其三

위 작품은 설날 아침 차레가 끝나면 나이 많은 어른들께 순서대로 새해의 첫인사인 세배(歲拜)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새해 첫날 마을 어른들과 친척어른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를 드리고, 세찬상(歲饌床)을 대접받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情을 느낄 수 있다. 세찬상에 오르는 떡국과 한과는 우리민족의 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겠다.

七旬纔滿老公卿 일흔의 나이에 막 접어든 늙은 공경들
 入社嗜英盛代榮 기로소 들어가니 태평성대의 영광이네
 靈閣清晨祗拜後 이른 새벽 영각에서 공손히 절한 뒤
 酪酥初進椀盈盈 주발에 가득 담긴 타락죽 처음 내오네
 유만공의 『歲時風謠』(正朝)

기로소(耆老所)는 기신(耆臣)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봄, 가을 두 차례의 기로연이 열렸다. 기로소에서 주발에 가득 담아 대접하는 타락죽은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서 절반쯤 끓이다가 우유를 섞어서 만든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이가 약한 노인들을 배려한 영양식이었다. 진상품인 귀한 우유를 연초 노인들께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

賀箋封發趁新正 신정을 맞이하여 하례 전문 올리니
 差使星馳上漢京 차사가 혜성처럼 한양으로 달려가네
 親友欣逢賸邑倅 친한 벗이 살진 수령 기쁘게 맞이하여
 屠蘇一醉大關情 도소주 한번 취함은 우정 때문이네
 유만공의 『歲時風謠』(正朝)

설날 먹는 도소주에 관한 시인데, 도소(屠蘇)라는 말은 도(屠)는 잡귀를 몰아내고 소(蘇)는 사람의 정신을 깨운다는 뜻을 지닌 설날 아침에 차레를 마치고 세찬과 함께 마시는 찬술이다. 도소주는 도라지, 산초(山椒), 방풍(防風), 백출(白朮), 육계피(肉桂皮), 진피(陳皮) 등을 조합하여 빚는데, 마실 때에 젊은 사람은 한해를 얻으므로 먼저 마시고, 늙은 사람은 한 해를 잃으므로 뒤에 마신다고 한다(국립민속박물관 2005). 위 작품에서 도소주는 친구간의 우정을 확인하고 돈독히 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며, 주인공을 취하게 하는 것은 도소주가 아니라, 친한 벗의 우정이라 한 표현에서 작가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金英初撥煮團飴 노란 국화 처음 따다 둥근 전 지저 놓고
 桑落新釀滴小槽 작은 지게미 떠 있는 상락주도 처음 걸렀네
 紅葉秋園成雅集 단풍든 가을 동산에 고아한 모임 가지니
 風流何似強登高 이 풍류 어찌 억지로 등고하는 것과 같으랴
 유만공의 『歲時風謠』(중양절)

위 작품은 중양절의 풍속을 읊은 것인데, 단풍이 드는 가을 향기로운 국화전과 상락주로 친한 친구들과 동산에 모여 풍류를 즐기는 장면이다. 상락주는 뽕잎이 지고 가을 누에치기도 끝나는 시기에 마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구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국화향과 상큼한 상락주향은 가을동산의 모임을 더욱 정겹게 전달하고 있다.

棗類初丹粟顆成 대추 볼 처음 붉고 밤송이 벌어질 때
 自新稻飯土蓮羹 하얀 햅쌀밥에 토란국 끓이네
 家家上塚如寒食 집집마다 한식처럼 성묘하러 가니
 明月中秋感慨情 달 밝은 중추날 감개한 정이더라
 유만공의 『歲時風謠』(秋夕)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情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이다. 시에 표현된 대추, 밤송이, 햅쌀밥에 토란국은 풍성한 한가위를 표현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한식처럼 벌초(伐草)하고 성묘하는 시구에서는 조상을 공경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읽을 수 있다. 풍성한 음식, 짝 찬 달 그리고 조상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한가위 풍경에서 우리민족의 정감어린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

進貢鮮魚節未闌 생선을 진상하는 절기 오래되지 않았는데
 水鱗雪甲凍輕寒 가벼운 추위에도 하얗게 비늘이 얼었네
 盈盈包級封餘膳 등금 따라 포장하여 넉넉히 봉해 둔 선물
 散作朱門上客餐 부호가의 손님상에 반찬으로 나누어 주네
 유만공의 『歲時風謠』(冬至)

조선시대 생선을 진상하는 절기에는 정조, 단오, 추석, 동지 그리고 탄신일에 진상하였는데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이때 진상하는 생선은 청어로서, 통영과 해주에서 가장 성황을 이루어 겨울과 봄에 진상하고, 나머지는 예(禮)에 따라 재상들에게 선물한다고 하였다. Jeremy

MacClancy(1992)는 음식의 문화적 의미 중 그 첫번째를 친분관계(Friendship)의 상징이라 하였다. 작품에서 보듯 귀한 생선을 넉넉히 봉해 선물하여 손님상에 반찬으로 대접하는 모습에서 음식을 통한 친분관계의 표현을 읽을 수 있다. 즉, 귀한 음식을 나눔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情을 나눔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는 나눔의 음식문화 특성을 느낄 수 있다.

柑製催行特教傳 감제를 재촉하는 특별한 교지 전해지니
 耽羅貢果運三船 제주의 진상 과일 세 척의 배로 운반되네
 試庭朝日頒金實 과장에서 아침에 금빛 감귤 내려 주시니
 一陣清香降自天 한 줄기 맑은 향기 대궐에서 내려왔네
 유만공의 『歲時風謠』(冬至)

제주목(濟州牧)에서는 귤, 유자, 감귤을 진상하였고, 해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이 진상될 때 성균관의 명륜당에 유생들을 모아놓고 감귤을 나누어 준 뒤 시제(試題)를 내려 시험을 치른 감제(柑製)가 열렸다. 진상하고 남은 감귤은 각 궁의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한 줄기 맑은 향기 대궐에서 내려 왔네’의 표현과 같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나눠주신 감귤은 그 자체가 성은(聖恩)인 것이다. 이렇듯, 음식은 마음을 담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이다.

邑饋題封宛印痕 도장 흔적 완연하게 봉하여 표지한 세궐
 綱來軍將向朱門 줄지어 온 사령들 부호가의 집으로 향하네
 茶餽鹽蕘零星饌 차와 옛 소금 건어물 그리고 소박한 반찬
 波及實親亦厚恩 후덕한 은혜가 손님과 친구에게도 미치네
 유만공의 『歲時風謠』(歲訖)

연말이 되면 예(禮)에 따라 세찬을 조정의 벼슬아치와 친지의 집에 보낸다. 각 관청의 아전들도 생치, 꽃감 등의 물건을 자기와 친한 집에 선물한다. 세찬을 보낼 때는 깨끗한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성명을 기입하든지 아니면 명함을 넣는데 친한 사이면 짧은 편지를 써 넣기도 한다. 여기서 작자는 차, 옛, 소금, 건어물 그리고 소박한 반찬이라 추정하였다. 실제, 북어, 생뽕, 언생선, 건시 등 주로 지방 토산품이 세공품으로 많이 쓰였다. 이렇게 받은 세궐은 세찬을 장만하여 손님과 친구등의 빈객을 접대하는데 사용된다. 음식은 역시 나눔으로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다.

成風修契里中人 좋은 풍속 계 모임 운영하는 마을 사람들
 歲饋需能辦不貧 세찬을 마련할 수 있으니 초라하지 않네
 善幸何須陳孺子 잘 나눠주는 진유자 기다릴 필요 있으랴
 北魚南草易分均 북어와 담배는 균등하게 나누기도 쉽다네
 유만공의 『歲時風謠』(歲訖)

세미이 다가오면 안살림을 맡은 부인들의 마음은 급하게 되고 연말연시 준비에 상당히 바쁘게 된다. 그 중에서 설날 차례에 쓸 제수를 장만해야 하고 또 하객을 접대하기 위한

세찬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조정에서 대신이나 각신에게 사대부나 종가에서는 어려운 일가에게 쌀, 고기 등을 보내어 설을 쇠게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계를 조직하여 세찬을 변통해야만 했다. 특히, 고기는 귀한 만큼 값도 비싸 어려운 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적으나마 계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는 우리민족의 공동체의식과 나눔의 음식문화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겠다.

隣朋相訪抵深更 밤 깊도록 이웃의 친구를 방문하여
 燈燭連街恣夜行 등촉 이어진 거리를 마음껏 다니네
 卵樣饅頭花樣炙 알 모양 만두와 꽃모양 산적으로
 剩供饌品別般情 특별한 정을 담아 넉넉히 대접하네
 유만공의 『歲時風謠』(除夕)

선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풍습을 수세(守歲)라 하는데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송구영신 풍속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날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기 위하여 옷으로 옷점을 쳐서 그 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부인들은 세찬 준비에 바빠 움직여야 하며 또 호롱불을 들고 왕래하는 묵은 세배꾼들도 있고 친구집에 찾아가 어울리는 등 이 날은 자연히 수세(守歲)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는데 ‘알 모양 만두와 꽃 모양 산적으로 특별한 정을 담아 넉넉히 대접하네’의 식구와 같이 음식에 듬뿍 담긴 풍성한 우리민족의 情을 느낄 수 있다.

軟菜推與翁 부드러운 나물 영감에게 밀쳐 주고
 焦飯盆翁鉢 누룽지 밥을 영감 사발에 털어주네
 爲翁不耐寒 영감님 추위를 많이 탄다 하고
 短裙裂作襪 짧은 치마 찢어서 영감 버선 짓네
 이양연 『춘노부』1

위 작품은 이양연의 「춘노부」로 궁벽한 산골에서 평생 고락을 함께 하며 쌓인 연륜 만큼이나 깊이 있는 노년의 사랑을 곡진하게 형상화 한 작품이다. 작자는 이들에게서 진실한 인간미와 깊은 애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부드러운 나물과 누룽지 밥은 치아가 약한 영감을 생각하는 부인의 따뜻한 情인 것이다. 이렇듯, 음식은 서로의 情을 나누고 확인하며 고달픈 삶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매개체인 것이다.

4. 상업과 경제발달을 보여주는 음식문화

조선후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개성, 평양, 수원등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私商人이 등장하고, 도시의 상업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조선후기의 紀俗詩 중 상업과 경제 발달의 상징인 서울의 시장 풍물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여 당시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五更三點四門開 새벽 4시, 3번 파루에 사대문이 열리니
馬載車輪一簇來 말에 싣고 수레로 운반하며 떼지어 오네
無數魚鹽無數菜 무수한 생선, 소금, 수많은 채소류
紛紛買趁已前回 ~ 분분히 사가지고 점심 전에 돌아오네

針包垂過縞襦邊 바느질 삼지 흰 치마에 드리우고
膩髮深烏板樣編 기름 바른 검은 머리 넓게 땅았네
日晏歸來筐子裡 해 저물어 돌아올 때 광주리 안에는
垂馨新菜節魚鮮 향기로운 나물과 싱싱한 생선 담겨있네
강이천의 『한경사(漢京詞)』

위 시는 새벽에 서울 시장 거리에 들어오는 상품과 시장 바다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수레에 실린 무수한 생선, 소금, 수 많은 채소류 등 일상적인 식료품들과 광주리 안에 향기로운 나물과 싱싱한 생선을 사서 돌아오는 여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서민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京江南米萬艘來 한강을 통해 남쪽의 쌀이 수만척에 실려오니
戶部尙暮點檢回 호부상서가 점검하며 도네
梔子石榴冬柏樹 치자, 석류, 동백나무
種盆分人好樓臺 각종 화분 나눠져 좋은 누대에 들어가네
강이천의 『한경사(漢京詞)』

당시 서울의 상업적 발달은 한강의 조운(漕運)을 통하여 더해갔다. 당시 공세미(貢稅米)나 기타 공물, 상납품 등은 한강의 5강(용산강, 마포강, 노량진, 뚝섬, 양화도의 5섬)을 통해 운반되었고, 이를 위해 한강 주변에는 여러 정자를 지어 관리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 한강을 통해 쌀이 수만 척 실려 오고, 쌀 뿐만 아니라 치자, 석류, 동백나무등이 화분에 나눠져 누대를 장식하는 모습에서 한강을 통한 조운의 활발한 교역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성시의 성함과 경제적 발전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麵局湯坊當路權 목 좋은 국수집과 탕을 파는 집
爭登人似熱門前 세도가의 문전처럼 사람들이 들끓네
兒童但買橋頭果 아이들은 다리에서 과자만 사 먹으니
稍得前宵打傭錢 지난 밤 제용치기로 얻은 푼돈이네
유만공의 『歲時風謠』(元夕)

유만공의 『세시풍요』중 대보름의 풍경인데, 국수집과 곰탕집 앞에 사람들이 들끓는다는 표현으로 당시 외식업이 대중화되었으며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허수아비를 뒤진 돈’이라는 제용치기해서 얻은 돈으로 어린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는 모습에서 당시 화폐경제 발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藉藉當年君七家 명성이 자자했던 그 옛날의 군칠집
至今街肆借名多 지금까지 그 이름 빌려쓰는 술집 많네

西京冷麵松京灸 평양의 냉면과 개성의 산적은
傲樣來難奈爾何 흉내내기 어려워 어떻게 할 수 없네
유만공의 『歲時風謠』(元夕)

조선시대 군칠(君七)이라는 자가 있어서 술 잘 빚고 반찬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이렇게 소문난 이름의 음식점이 생기면 잇따라 경쟁적으로 그 옥호를 딴 점포가 많이 생겨나지만, 평양냉면과 개성산적은 모방하여 맛내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맛이 뛰어나고 유명한 음식이라는 것이다.

酒燈高掛板門開 주막등을 높이 걸고 판자문을 열어 놓고
一卓紛然椀櫟杯 주발 접시 술잔등을 한 상 가득 차려네
午夜燒豬涼屋下 한밤중에 양옥에서 돼지고기 구우니
行人多逐膩香來 오고가는 사람들이 냄새 맡고 찾아오네
유만공의 『歲時風謠』(元夕)

주막은 술과 밥을 팔면서 나그네를 유숙시키던 집이다. 주막은 ‘酒’자를 쓴 주막등을 달거나 장대에 용수를 달아 지붕 위로 높이 올리거나 하여 술집임을 표시했다. 또 쇠머리나 돼지머리 삶은 것을 좌판에 늘어놓아 주막임을 알리기도 하였다. 주발, 접시, 술잔등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한밤중에 구수한 돼지고기를 구워 손님을 끄는 주막의 풍성한 풍경에서 당시 상업 발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場市繁華樂歲秋 풍년을 맞은 가을 시장이 변화하니
熙熙行旅故遲留 나그네 즐기면서 짐짓 오래 머무네
欣看野店侈肴饌 가게의 풍성한 음식 호뭇하게 바라보니
到處何多蹇腳牛 도처에 다리 부러진 소 많기도 하구나
유만공의 『歲時風謠』(秋夕)

조선시대의 시장은 크게 서울의 경시(京市), 지방의 향시(鄕市), 왜관개시와 준강개시 같은 국제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향시는 매일 열리는 ‘상설시’, 아침 저녁 열리는 ‘근석시’, 일정기간 열리는 ‘정기시’로 나뉜다. 보통 정기시는 5일장으로 열린다. 1830년대의 시장상황을 다루고 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전국에는 1,052개의 정기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소는 농사짓기에도 부족할 만큼 귀한 가축이었기에 도축을 금하는 우마(牛馬)의 금살령이 내려지고 소를 잡을 때는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명절 같은 때에 쇠고기 수요가 늘어나므로 몰래 도살하는 경우가 많았고, 곧잘 다리 부러진 소라는 핑계를 대고 도살하기도 하였다. 쇠고기는 귀하고 값이 비싼 음식이지만 ‘시장도처에 많기도 하다’는 표현과 ‘가게의 풍성한 음식을 나그네가 즐기면서 호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에서 변화한 가을 시장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借問年年何所載 ‘해마다 무엇을 싣고 다닙니까’ 물으니
禾穀米鹽輿魚鮮 ‘곡식과 소금과 생선이라네’
去時虛兮來時盈 갈때는 빈배요, 올때는 만선이네
運轉如輪無暫停 수레바퀴처럼 잠시도 쉬지 않으며

地毛水産窮其利 농산물과 수산물들 그 이익을 최대로 하네
 홍석모의 『해상행(海商行)』30

위 작품은 홍석모의 가행체 장편시인 「해상행」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넘나들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읊고 있다. ‘무엇을 사다가 한양에 팝니까’ 하고 묻는 작자의 물음에 ‘농산물과 수산물이 주된 상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쌀과, 소금, 그리고 생선등을 사다 팝니다’라는 상인과의 직접적인 문답을 통하여 상인의 삶을 현실에서 직접 찾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위 대목에서도 우리는 조선후기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 상황 등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시장의 품물은 단시형 작품보다는 장편시에 더욱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저잣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인 상품을 노래한 부분들이다.

鐘動鷄鳴九門開 닭 울고 파루 치자 아홉 대문 열리니
 車輦馬載萬貨峙 온갖 재화 수레에 실려와 쌓이네
 菽粟黍稷稻粱黍 콩 서숙 기장과 피 나락 수수에
 布帛珠貝綾羅綺 무명베 명주베와 능라비단이요
 橘柚桃杏柿棗栗 굴 유자 복숭아 살구 감 대추 밤에
 鳧雁鯊鱈鱸鱠鮓 오리 기러기 상어 갈치 송어 전어며
 酒漿衣服之所具 술 간장 옷가지에 쓰이는 도구가
 小術曲坊交填委 구석구석 거리거리 산더미처럼 쌓이네
 신광하 『성시전도시』57-64구

鳳城絨帽燕京絲 봉성 털모자와 연경실이요
 北關麻布韓山泉 북관 삼베에 한산 모시라
 米菽禾黍粟稷麥 쌀과 콩과 나락 서숙에 피와 보리요
 榑桮楮漆梧松梓 녹나무 닳나무 옷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가래나무
 椒蒜薑蔥薺芥藟 산초 마늘 생강 파에 부추 겨자 버섯이요
 葡萄棗栗橘梨柿 포도와 대추 밤에 굴과 배와 감이라
 有剖而鋪貫以脰 갈라놓은 생선포에 꿰어놓은 꿩 포요
 章舉石首鱧鱠鮓 보기 좋게 들린 것은 조기 넙치 연어 상어라
 栢葉灑菓潤欲滴 잣나무 잎 뿌린 과자 기름기가 흐르고
 絲核護卵明於砥 목화씨 기름 호란은 솟돌보다 빛이 나네
 賣腐篩筐高似塔 두부를 파는 상자 탑보다도 높고
 盛苾綱眼踈如麤 외를 담은 망태기 그물 눈 성글다
 박제가 『성시전도시』47-62구

沿街左右千步廊 거리 좌우에 늘어서 있는 천 간 집에
 百貨山積計倍蓰 온갖 물화 산적하여 셀 수도 없네
 錦肆紅綠班陸離 울긋불긋 비단전에
 紗羅練絹綾縠綺 온갖 비단 벌여 있고
 魚肆新鱗足珍腴 어물전에 싱싱한 생선 통통히 살찌었으니
 鱸鱠鱖鮓鮑魚鯉 갈치 농어 준치 쏘가리 송어 붕어 잉어라
 米肆隣近飯顛山 싸전 인근엔 쌀이 놓여 반과산 같으니
 白粲雲子滑流匕 순가락에 하얀 쌀밥 기름이 흐른다

酒肆本自人間世 주막은 본래 인간 세상이나
 熊白猩紅滿滿區 맑은 술 성홍 빛 술 술병에 가득하네
 行商坐賈指難儂 돌아다니는 행상, 앉아 파는 이 셀 수 없으니
 細瑣玄鱗無不庀 갖가지 자잘한 물건도 없는 것이 없다네
 이덕무 『성시전도시』157-168구

위 작품들은 콩, 서숙, 기장, 피, 나락, 수수, 보리, 쌀 등의 각종 곡식과 굴, 유자, 복숭아, 살구, 감, 대추, 밤, 포도, 배, 잣 등의 풍성한 과일과 오리, 기러기, 상어, 갈치, 송어, 전어, 꿩포, 생선포, 조기, 넙치, 연어, 농어, 준치, 쏘가리, 붕어, 잉어 등의 맛있는 어육류와 산초, 마늘, 생강, 차, 부추, 겨자, 버섯 등 싱싱한 야채류와 갖가지 기름기 흐르는 과자, 술병마다 가득한 맑은 술 등 변화한 시장에 널려진 물산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묘사 하였다. ‘구석구석 거리거리 산더미처럼 쌓여~ 없는 것이 없다네’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당시의 활발한 도시경제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다.

委地微聞半魚鱉 쌓아 놓은 생선은 비린내 풍기고
 逢人突出皆豨豕 돼지 새끼 튀어나와 사람을 들이 반네
 笑渠糶米手空升 우습다 저 쌀장수 선채로 빈 되질하면서
 公然唱籌立無恥 태연히 덧수를 부르며 부끄러움도 없네
 懸鵝之夫醉無知 누더기 입은 사내는 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倒枕輻枉睡日裏 상여다리 거꾸로 베고 대낮에 잠을 자네
 이학규 『성시전도시』119-124구

이학규의 「성시전도시」역시 조선후기 서울시장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비린내를 풍기며 쌓여 있는 생선, 돼지가 사람을 들이 반는 해학적 모습, 속임수를 부리는 쌀장수와 누더기 입은 취객의 모습들까지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몰려들어 흥청거리는 시장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천하의 산물이 모여들어 풍성하고 활발한 시장 풍경뿐만 아니라 그려진 온갖 종류의 인간들의 모습은 한편의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이와같이 漢詩에 표현된 음식문화를 통하여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5. 생활고와 빈부갈등을 상징하는 음식문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조선후기의 활발한 시장의 모습은 서울 등 일부 도시의 모습이며, 지방과 농촌에서는 기근이 심해지고 보릿고개를 견디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많은 漢詩들은 당시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있으며, 현실의 모순을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記俗詩 중 음식생활로 표현된 당시의 생활고와 빈부의 갈등 등을 나타낸 대표적인 몇 작품을 통하여 당시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노고와 궁핍한 삶의 애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棗花時節急移秧 대추꽃 피는 시절 서둘러 모를 심어야 하니
 暴雨纔晴又赫陽 폭우가 겨우 그치나 했더니 다시 불볕이로다

伏月豪家徒醖飲 부자들은 일없이 복달임 잔치 벌이는데
 夏畦人自劇奔忙 여름날 밭 매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다네
 유만공 『歲時風謠』(伏日)

복날에 모여 개장국을 먹고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복달음’ 또는 ‘복다림’이라 하였다. 삼복더위에 복다림 잔치를 벌이는 부자들과, 피약벌 아래 논두렁에서 일하는 농부의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계층간 빈부의 갈등과 농민의 노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萬粒丹砂共以團 단사같은 붉은 밥알을 섞어 한 덩어리씩 만드니
 貧家稀罕得珍餐 가난한 집은 귀한 음식 먹는 일이 드물다오
 那知喫慣豪華子 어찌 알랴 좋은 음식에 익숙한 호화자 자식들
 只做家常飯樣看 집에서 날마다 먹는 밥처럼 여길 뿐이라네
 권용정 『세시잡영』약반(藥飯)

보름날 약밥을 먹는 풍속을 노래한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 약밥과 같은 귀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부잣집에서는 사치스러운 음식을 예사로 먹기 때문에, 약밥 같은 별미도 날마다 먹는 밥처럼 여긴다. 약밥을 먹는 풍속 그 자체보다는 빈부간에 먹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약밥 먹는 풍속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十尺長竿如人立 열 자 긴 간짓대가 사람 같이 서 있는데
 竿頭縛草風簾簾 장대 머리에 풀을 매달아 놓으니 바람이 췌췌
 富家買田多膏腴 부잣집 논밭 사들여 다들 기름지니
 每歲祈年年穀熟 해마다 풍년 빌어 해마다 풍년이라
 千牛糶載百室盈 천마리 소에 가득 실어 백 개 곡간에 가득하니
 鷄有餘粒犬餘粟 닭도 난알을 남기고 개도 먹을 것을 남기네
 貧家元無卓錫地 가난한 집 원래부터 송곳 꽃을 땅때기도 없는데
 屋上何由豎竿竹 무슨 일로 지붕에 장대나무를 세우는가
 不及富家鷄與犬 부잣집 개와 닭만도 못하니
 終日力作未得食 종일토록 힘들여 일해도 밥도 못 먹는 신세라오
 貧家莫羨富家竿 가난한 집 사람들 부잣집 장대 부러워 마오
 轉眼貧富互翻覆 눈을 돌려보면 빈부가 서로 뒤바뀐다오
 去年東家曾豎竿 지난해에는 동쪽 집에 장대가 서있더니
 今年更在西家屋 올해에는 다시 서쪽 집 지붕에 있지 않소
 竿起竿倒自年年 장대 일어나고 장대 쓰러지는 것 해마다 다른데
 人生志願苦不足 인생에 뜻과 바람 만족할 줄 모르는게 괴롭다오
 何時復行均田法 어느 때나 다시 균전법 시행하여
 千村萬落竿簇簇 천 고을 만 마을에 장대 뻑뻑이 오르게 할까
 권용정 『세시잡영』도간(稻竿)

보름날에 벼 장대 세우는 풍속을 다루고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인 도간을 다루면서 단순히 풍속만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간과 바로 연결되는 빈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형편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가난한 집 사람은 부잣집 개나

닭만도 못하다는 말로 당대의 심각한 빈부 문제를 충격적으로 표현하였다.

不把金錢也做醫 돈이 없어도 의원이 될 수 있으니
 胡桃破核粟穿皮 호두는 깨물어 부수고 밥은 껌질째 깨뜨리네
 眼看百事皆瘡痍 눈에 보이는 세상일이 모두가 종창이요 명투성이라
 今日應須利齒兒 오늘은 모름지기 치아를 날카롭게 해야 하리
 권용정 『세시잡영』작저(嚼瘻)

당대 현실사회가 온통 곪아 있고 명들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치아를 날카롭게 하고 현실의 모순을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百司爭腴祭神童 백사가 다투어 신당 제사 재수를 푸짐하게 올리니
 靈福知應各有求 영험한 복록이 저마다 구하는 대로 응한다고 하네
 最是饜饑刑獄吏 가장 탐욕스러운 자들은 바로 형옥 아전들이니
 暗祈常滿富人囚 감옥에 늘 돈 많은 죄수 가득하게 해달라고 빈다네
 유만공 『歲時風謠』163

유만공의 작품은 형옥의 아전을 지적하여 구체적으로 관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시월 상순에 민간에서는 도신(禱神)이라 하여 시루떡을 찌 성조신에게 빌고, 온 마을이 이 떡을 나누어 먹는다. 각 관청에서는 이달 신당에 제사를 드리는데, 저마다 제수를 풍성하게 갖추어 복을 빌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형옥의 아전들은 감옥에 언제나 돈 많은 죄수들이 가득하도록 해달라고 빈다는 것이다. 형옥의 아전들이 죄수들로부터 부당하게 재물을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其中袞袞生公侯 그 중에 성대하게 공후가 태어나니
 戚聊世祿旋從仕 인척과 세록으로도 역시 벼슬을 한다네
 遺孳自足爲子孫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 스스로 풍족하니
 掌輪豈必耽文史 문한을 맡는데 어찌 구태여 문사를 배우랴
 三邊六鎮不到憂 삼변과 육진은 걱정하지 않고
 只愁肉食老無齒 늙어서 고기만찬에 이 없는 것만 근심하네
 이학규 『성시전도』79-84구

이학규의 「성시전도시」의 일부이다. 권문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혈통으로 벼슬을 하고, 자손에게는 물려줄 재산이 풍족한 특권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문한을 담당하면서도 문사를 애써 배우려 하지 않았다. 자기의 직책에 대한 사명감도 전문지식도 없었다. 변방 국경의 방비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가 없어 고기 먹는 것이 불편한 것만이 걱정일 뿐이다. 조선후기 봉건 관료들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박제가와 이덕무의 성시전도시에는 한양을 번성한 모습들을 주로 시화한 반면 이학규는 유배지에서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었고, 또한 생애 및 기질에서 이들과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시정 서민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형상화하였다. 그것은 주로 빈부의

갈등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에 대한 비판은 주로 관의 권위와 비리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黃頭赤脚村娥醜 누런 머리 붉은 다리의 못 생긴 촌부
 籬落梔花浦上家 울타리에 치자꽃 핀 포구가 집이라네
 織布耘田完事業 베 짜고 김매기를 다 마치고 나면
 鬻鹽撈蛤理生涯 소금 팔고 조개 주워 생계를 꾸리네
 윤정기 『금릉죽지사』11

바닷가 시골마을 아낙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시골 여성들은 돈을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쌈, 김매기, 소금장사, 조개줍기, 방아품팔기 등 온갖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하였다.

屋上匏花澹月微 지붕 위 박꽃이 엷은 달에 희미한데
 鄰家健婦賃春歸 건강한 이웃 아낙 방아품 팔아 돌아오네
 瓦椀分來羅祿飯 오지 주발에 나락 밥을 받아 오는데
 蟲聲一道露沾衣 벌레 우는 길옆에 옷깃을 적시네
 윤정기 『금릉죽지사』21

위 작품은 건강하게 생긴 시골 아낙이 방아품 팔아서 나락 밥을 얻어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힘든 품팔이로 나락 밥 한 주발을 받아 오는 아낙의 모습에서 당시 서민의 고달픈 삶을 짐작할 수 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우는 벌레 소리가 더욱 애달움을 더해준다.

盡日登山採蕨還 온종일 산에 올라 고사리 캐어 돌아와
 月懸春杵曉歌寒 새벽달 걸린 밤 방아 소리 차갑구나
 却羨農家曲角牴 우리집 뿔 굽은 어미 소가 부러워라
 夜來猶得一時間 밤이 되면 그때나 한 때나 한가하지
 이제영 『대신부언회정기대인용』1

이제영의 「대신부언회정기대인용」은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온 신부가 노동의 고통과 수면 부족, 친정에 대한 그리움 등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이다. 낮에는 온종일 산에 올라 나물을 캐고, 밤에는 날이 새도록 방아를 찧어야 한다. 여성은 일상 노동과 함께 힘겨운 가사노동에도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예사로 밤을 세워야 하고 그 결과 항상 잠이 부족하였다. 밤에 누워 자는 암소가 부러울 만큼 고달픈 생활인 것이다. 시집살이의 고통은 시골 농가 여성에게 더욱 힘겨운 질곡이었던 것이다.

酒禁怕官家 관가에서 내린 금주령이 두려워
 屠蘇不敢釀 도소주 조차 담그지 못하네
 百姓爾何知 백성들이여 그대들이 어찌 알리
 清酒溢大盎 ~ 큰 항아리에 청주가 넘치는 줄을
 上富屠數牛 상등 부자는 소 두어 마리 잡고
 中富屠一牛 중간 부자는 소 한 마리는 잡네
 往年牛疫死 지난해 역병에 소가 죽었으니

春農何不憂 봄 농사를 어찌 걱정하지 않으랴
 이덕무의 『세시잡영』

백성들에게는 도소주(屠蘇酒)조차 담그지 못하게 하면서 관가에서는 큰 항아리가 넘칠 정도로 청주(淸酒)를 담가 두고, 가난한 농민들은 병역 때문에 소를 잃고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데 크고 작은 부자들은 설날 소를 잡아 포식하는 모습을 읊조리면서 부조리한 현실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백성들의 질곡된 삶을 비판한 것이다. 아무리 새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즐거울 수 만은 없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聞道南民似涸鱗 남쪽의 백성들 권 물의 물고기 같다 하니
 幾家湯餅作年新 몇 집이나 떡국을 끓여 새해를 맞이했을까
 從知酒肉朱門里 부호가의 집에는 술과 고기 넘쳐 나건만
 誰念窮閭菜色人 그 누가 궁핍한 채색인을 염려해 주리오
 이하곤의 『원조희작(元朝戲作)』其七

이하곤의 「원조희작」중 일곱째 수이다. 학린(涸鱗)은 수레바퀴 자국에 권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거나 몹시 고단하고 웅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남쪽의 백성들이 권 물의 물고기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 새해를 맞이하는데 떡국을 끓일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부호가의 집에는 술과 고기가 넘쳐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식문화로써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빈부격차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湯餅元朝第一羞 떡국은 설날의 으뜸가는 음식이니
 一器二器記春秋 한 그릇 두 그릇 나이를 헤아리네
 富家家家蒸權母 부자들은 집집마다 가래떡을 찌고
 貧家家家代饅頭 가난한 자 집집마다 만두로 대신하네
 이안중의 『비년사(肥年詞)』

비년(肥年)은 설날의 즐거움을 기록한 것이다. 설날 떡국 먹는 풍습을 노래하는데 부자들은 쌀로 만든 귀한 가래떡을 만들지만 가난한 자들은 떡 만들 쌀이 없어 밀이나 잡곡으로 빻은 만두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가래떡과 만두를 대조적으로 나타냄으로 음식을 통하여 빈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西日欲曛行人逗 서산의 해는 지려하니 행인이 길을 멈추네
 鄉間蕭瑟鷄犬空 마을은 쓸쓸하여 개와 닭도 없는데
 女停杵軸男廢擲 여자는 길쌈을 멈추고 남자는 김을 매지 않네
 菜無宿根松刻皮 들풀은 오래 된 뿌리가 없고 소나무는 가죽이 벗겨졌으며
 酒醴糠覈不盈榼 술찌기와 싸라기도 그릇에 차지 않네
 荳澆油渣亦論錢 콩찌기, 기름찌기도 또한 값을 흥정하니
 飢口爭先糲且糝 굶주린 나머지 포대기 가지고 앞서기를 다투는구나

從前狗彘食人食 맹자는 개와 돼지가 사람 먹을 것을 먹는다고
했는데

幾何人食反爲畜 얼마나 많은 음식이 짐승에게 주어졌는가
黍稷菽粟與米貴 기장, 콩, 조, 등이 쌀 만큼 귀해
一粒難於千金買 한톨이 천금으로도 살 수 가 없네
再食誰肯王公換 하루 두 번 먹는 것을 누가 왕공과 바꾸겠는가
孟飯可敵萬種授 한 그릇 밥이 높은 벼슬에 상당하네
年來又失木綿農 몇 년 동안 목화 농사도 흉년이니
麤糲尺布當錦繡 거친 베도 비단 값을 받네
民無穀絲曷爲生 백성이 곡식과 옷감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時緇民窮良非偶 흉년들어 백성이 궁핍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네
貴者還賤賤者貴 귀한 자가 천해지고 천한 자가 귀해져
不齊物情相雜糅 바르지 않은 세상 실정 뒤죽박죽이네

홍석모의『民荒篇』20-38

위 시는 궁핍한 상황의 절절한 묘사로 흉년을 읊고 있는 홍석모의 84구의 장편시 일부이다. 백년만에 처음 보는 지독한 흉년이 계속된 뒤라 물건 매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개와 닭도 없는 현실이란 굶주림에 살아 남은 가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길쌈과 김매기 등의 기본적인 생업마저 포기한 상태이다. 초근 목피로 목숨을 연명하는 형국에 기름찌꺼기, 콩 찌꺼기조차도 비싼 값을 부르며, 그것마저도 서로 다투야 겨우 살 수 있는 현실이 작자의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돈이라고 있을 리도 없겠지만, 있다고 하여도 천금보다 비싼 곡식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민초들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다.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로 밥 한그릇이 모든 바람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백성들의 삶의 다른 한축인 목화농사도 흉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의식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를 수 없는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작자의 애뜻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극심한 흉년의 상황은 가치판단의 전도를 가져왔다. 다만衣食의 경제생활만이 뒤죽박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전하여 사회적인 가치마저도 뒤바뀐 것이다.

剝松山盡白 소나무 껍질 벗겨 산이 죄다 하얗고
挑草野無靑 풀뿌리 캐내어 들에는 푸른빛이 없네
莫道來牟在 보리농사 있다고 말하지 마소
乾糞又蠶螟 누렇게 길마르네다 벌레까지 먹었다네

조수삼 『북행백절』18

조수삼의 관북지방을 여행하고 지은 「북행백절」에 나오는 작품이다.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는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노래한 것이다. 산은 온통 하얗고 들에는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모습과 보리농사마저 망쳐 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 내었다. 당시 백성들의 극한적 삶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漢詩로 쓴 우리 민족의 풍속지라 할 만큼 민족 고유의 생활습속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조선후기 紀俗詩를 통하여 음식문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에 표현된 음식으로 민중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선후기 紀俗詩의 작품을 분석한 2次資料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한 문헌고찰에 의존하였다.

조선후기 漢詩는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각 지방 향촌사회의 토속적 생활 습속, 농가의 생활상 등 주로 기층민의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紀俗詩가 특징적으로 연작되는데, 이러한 紀俗詩 중 주로 세시풍속을 읊은 세시기속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세시 중 세모와 정초에서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의 풍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년 중 가장 여가가 많은 농한기로,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길흉을 점치고 복을 맞이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각종 민속행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紀俗詩를 음식이라는 매개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식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다양하고 풍부하였던 제철 음식문화의 특성이다. 우리민족은 세시음식을 중심으로 제철에 나는 식품재료를 거의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시절음식에는 藥食同原의 사상이 잘 나타나 몸을 보하는 약의 의미가 강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철과일, 채소류 섭취등을 통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조절하여 건강을 지속시키는 방편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기복(祈福)과 기풍(祈豐)의 음식문화이다.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풍족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먹을 것이 풍족하기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고,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고 의약의 힘을 비는 것이지만, 이밖에 복되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세시풍속으로 정착해서 계절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여기고 농경민족의 최대 소원은 풍년이 드는 것이고, 풍년을 갈망했기 때문에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정착하게 되었다. 즉, 민중들에게는 굶주림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었으며 배부르게 먹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소망이었다. 세시절기에 먹는 민속음식은 시절의 별미일 뿐 아니라, 각기 특별한 유래와 민속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민간신앙으로 전승되었다. 紀俗詩는 이처럼 민중의 기본적 생활양식인 세시민속음식을 중요하게 다루어 민중의 생활상 의식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셋째, 정(情)을 나누는 음식문화이다. '情'은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정서이며,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품앗이, 계, 두레 등 농경의식과 혼례, 회갑

등의 통과례, 또한 세시풍속등의 문화 행사에 반드시 음식 나누기가 행하여지는데,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곧 '마음(心)'을 나눈다는 것이고 '정(情)'을 나눔으로 동질성을 갖게 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紀俗詩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식 나눔을 통한 독특한 '나눔의 情'을 표현하는 음식문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상업과 경제발달을 보여주는 음식문화이다. 조선 후기 紀俗詩에서는 상업과 경제 발달의 상징인 서울의 시장 풍물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여 당시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곡식, 과일, 채소, 고기 등등 온갖 시장의 물건들과 주막, 국수집, 탕집등을 그림 그리듯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풍성하고 활기찬 시장의 풍경과 활발한 상거래 상황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생활고와 빈부갈등 상징(象徴)으로서의 음식문화이다. 서울 등 일부 도시의 시장과 화폐경제는 발전하여 눈에 띄게 활기를 띤 반면, 지방과 농촌에서는 기근이 심해지는 등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관리들의 횡포도 심해지는데 이러한 민중들의 생활고와 빈부갈등의 문제들을 음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노고와 궁핍한 삶의 애환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강명관. 2002. 조선후기 한시와 회화의 교섭-풍속화와 기속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연구, 30(0):29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 민속의 세계 제5권. 창작마을. 서울. p 225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후기 문집편. 민속원. 서울
 김경미. 1987. 대보름 풍속시 상원리곡(上元俚曲) 25首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6. 7:144-167
 김명순. 1994. 조선후기 서울의 풍속 세태를 다룬 기속시 연구. 동방한민학회. 동방한민학. 10:149-150
 김명순. 1997. 홍석모의 도하세기속시 연구. 대동한민학회. 대

동한민학 9(0): 240-242
 김명순. 1998. 조수삼의 기속시 연구. 동방한민학회. 동방한민학 14(0): 210-212
 김명순. 2005.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수용연구. 보고서. 서울. pp 15-23
 김상홍. 2003. 조선조 한문학의 조명. 이회문화사. 서울. pp461-512
 김향희, 황춘선. 1991. 한국 절식의 여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6(2): 155-173
 방현아. 1994. 강이천과 한경사. 민족문화사연구, 5(0): 194-224
 배영희. 1995. 무가에 나타난 수 '구'의 상징성, 한국민속학회, 5(0): 67-92
 서형주. 1999. 유만공의 『세시풍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pp 1-8
 오세영, 이현. 2004. 한국인이 공동체의식과 식문화에 대한 사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5):556-565
 이관성. 2003. 도에 홍석모의 한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 115-137
 이성우. 1985. 한국요리문화사. 교문사. 서울
 이정선. 2002.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울. pp 9-11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서울. p 269
 임양순. 1986.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 361-370
 정혜경. 1996. 서울의 음식문화-영양학과 인류학의 만남. 서울학연구소. 서울. p 48
 조동일. 2005. 한국문화통사 3. 지식산업사. 서울. pp 224-232
 조후종. 1996. 우리나라의 명절음식 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547-559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情'에 관한 심리학적 비교 분석. 인문학 연구, 21(0):139-144
 Jeremy MacClancy. 1992. Consuming Culture. Chapman's. London. pp 2-3

(2007년 7월 20일 접수, 2007년 9월 21일 채택)